

# 찬양은 곧 나의 마음입니다

## 안수 받은 이 현상 목사

인터뷰를 위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도통 연결이 되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문자도 보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초조해하고 있을 즈음 연락이 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켈거리에 있어서 답을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연락드렸죠?”

애길 듣고 나니 내가 급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해서 그곳 일정에 피해를 주지 않았나 싶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여러 번의 연락 끝에 만난 사람, 바로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인 이현상 목사이다.



### 바쁜 일상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던 날 만난 그는 여전히 바쁜 모습이었다. 2박 3일 일정으로 켈거리의 청소년연합집회를 인도하고 막 돌아온 그는 집회의 뜨거운 열기로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사역하는 목사님의 일주일 시간표를 물으니 화요일 교회 전체 스태프 회의부터 수요일 예배와 성경공부 양육, 금요일 부흥회,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일주일의 빈 자리 없이 꽉 차 있었다. 유일한 휴일인 월요일을 가족과 함께 어떻게 보내는지 묻자 살짝 웃음을 보인다.

“주로 가족과 보내기는 하는데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할 때가 많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운동하러 가면 아내가 조금 섭섭할 듯도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요.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이고 또 다른 날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죠.”

###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아내

아내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떻게 만났는지 슬쩍 물어봤다.

“어릴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제 친구가 아내의 친구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군대를 다녀와 선교단체에 스태프로 들어가니 그곳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더군요. 아내가 첼로를 하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클래식 음악을 해서 도도할 줄 알았는데 순수하고 밝은 점에 끌렸어요. 막내라서인지 어두운 구석도 하나 없었고요. 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않았겠죠.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저한테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가 아주 중요했어요.”

결혼한지 이제 10년,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의 집에는 음악이 끊이지 않는다. 집에서도 째짤이 기타를 치고, 함께 음악을 듣고 즐기기에, 집에 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짜즈바에 온 것처럼 느낀다고 한다. 아내와 또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는 바로 ‘커피’. 커피에 관심이 많다 보니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핸드드립도 하나씩 모으게 되고 원두의 맛에도 일가견이 생겼다. 음악과 커피를 아는 목사님.... 왠지 낭만적인 느낌이 든다.

### 찬양과의 첫 만남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었던 이현상 목사는 중학교 1학년 때 찬양 인도를 시작했다. 단지 기타를 친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전도사의 눈에 띄어서이다. 사명감보다는 어린 나이에 사람들 앞에 선다는 자체가 좋았다. 그는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당시의 통기타 유행가 대부분을 칠 줄 알았더니 음악적 재능을 타고 났나 보다. 혹 가수가 되고 싶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졌다.

“어릴 때 꿈은 백화점 사장님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백화점에 갔는데 없는 것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가수 생각도 했지요. 일반 가수는 아니었고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가수가 되고 싶었고 될 뻔도 했지만, 왠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가지 않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부터 삶이 조금씩 달라졌다.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교회 선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교회 기도실에서 매일 기도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기도하면 그림과 환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팀 리더를 하는 한편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별다른 고민없이 신학 대학에 진학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기치 않은 방향이 시작되었다. 고등학교 때 만난 뜨겁고 따뜻했던 하나님과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인 하나님과의 괴리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론까지도 공부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의 생김과 고민하였다. 그때부터 공부는 뒷전이었고 헤비메탈 같은 어두운 음악에 몰두하며 마음대로 살았다.

### 주님의 길로 들어서다

긴 방향을 끝낸 것은 군대에 있을 때 받은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해 아랍어과에 진학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던 교회 선배가 군대에서 수류탄 사고로 즉사했다는 소식이었다. 찬양팀을 같이 하면서 매우 좋아했고 따르던 선배였기에 허무함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술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군대 근처 바닷가에 혼자 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고등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 뭐가 괴로운지도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이후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후임들에게 술을 강요하던 모습에서 술은 아예 끊고 영어공부에 매달리며 새사람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전도여행도 가고, 외국에 나갈 기회가 가끔씩 있어서인지 왠지 모르게 한국에서만 살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또 언젠가 외국에서 공부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제대하는 날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했어요. 하루아침에 바뀐 거죠.”

하나님은 그를 그레이스 교회로 보내기 위해 이때부터 준비시키신 게 아니었을까?



### 가족 같은 그레이스 한인교회

밴쿠버로 유학 오기 전 사전답사 왔을 때 아는 분의 소개로 박신일 목사를 만났다. 그리고 2003 년부터 시작해 이제 딱 10 년, 우리 교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왔기에 그에게 ‘그레이스한인교회’는 그야말로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죠. 마치 아이가 청년으로 자라는 것처럼 저 역시 교회와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사역지라기보다 제 교회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처음에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꼭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평신도나 선교사로 헌신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은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전도사로 섬기면서 목사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어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차피 목사라는 길에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몇 년 빨리 목사가 되는 것보다 어떤 사역자가 되어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가 더 중요했어요.”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 많은 사역을 해야겠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더욱 단단해지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지 묻자,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들이죠. 이제는 안 계시지만 지금 제 나이보다 젊은 분들이었는데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하셨어요. 나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박신일 목사님도 40 대 초반에 그레이스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역시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개척하셨거든요.”라며 이분들을 보면서 목회는 희생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고 말한다.

### 찬양의 주인은 하나님

찬양팀이라고 하면 보통은 연주와 찬양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완벽한 연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멋진 찬양을 드린다 해도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찬양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팀에게 연주나 찬양을 너무 완벽하게 혹은 화려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강조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연주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러한 생각은 찬양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주일 말씀과 어울리는 곡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찬양을 준비한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노래하는 것이 진짜 경배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내세워서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찬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눈이 다시 반짝인다. 역시 그에게 찬양만큼 즐겁고 중요한 것은 없는듯하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묻자 ‘삶의 현장에서 찾아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 주님을 알리는 목회자, 또한 그레이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힘을 보태고 싶다.

그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낫다(시편 84:10)'고 다윗이 고백한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았던 다윗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 아이처럼 춤추고 노래하는 겸손한 주의 종이 되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의 모습을 그레이스교회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볼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 [이세희 기자]